

# 일일이 직접 촬영한 세계의 명승고적

## 동아출판사 펴냄 「세계의 가볼만한 101곳」

제목 그대로 전세계의 절경과 문화유산을 담은 「세계의 가볼만한 101곳」(동아출판사)은 출판되자마자, 5년여의 제작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든 역작으로 평가받으며 화제의 책이 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의 풍물을 담은 사진과 글을 엮은 책들이 무수히 나왔으나, 이 책처럼 사진과 글이 우리 손에 의해 전부 제작돼 수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 명승지를 우리의 기준과 시각으로 골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동아출판사는 우선 여행전문가들이 추천한 3백여 곳의 명소 가운데서 51개국 101곳을 추려냈는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문화유산이 많은 세계적 대도시 ▲인류의 고대문명이 잘 보존된 유적지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주요종교의 성지 ▲풍광이 수려한 유명 휴양지 ▲영화사에 남을 명화의 배경이 됐거나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이 되었던 곳을 기준삼아 선정했다. 이같은 선정작업에는 여행가 김찬삼씨와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나서 우리의 관점에서 수록할 대상을 골라내 외국인의 관점에서 고른 여행지에 익숙해왔던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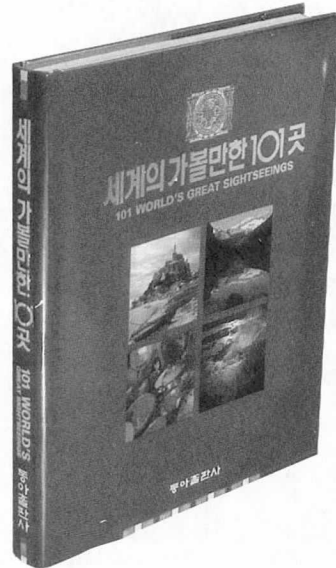
### 현지촬영 사진 530여점 돋보여

한편 이 책에 실린 모든 사진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개성있는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출판사는 외국의 사진을 게재하지 않고, 사진작가이면서 자료실 차장인 허영선씨를 수십차례 외국에 보내 직접 촬영

**촬영팀을 파견, 전세계 51개국**  
**101곳의 비경과 문화유산을 담은**  
**‘국산’ 사진과 각계 인사 71인의**  
**유려한 여행기가 실린 「세계의**  
**가볼만한 101곳」. 여행전문가들의**  
**장소 선정작업과 15만점의 현지촬영**  
**사진, 5년여의 제작기간과 막대한**  
**제작비 등의 공을 들인 이 책은,**  
**글과 사진 모두에 한국인의 시각과**  
**정서가 담겨 의미가 깊다.**

하도록 했다. 이 책에 실린 5백 30여점의 사진은 지난 5년 동안 촬영한 15만점 가운데서 엄선한 것들로, 특히 이제까지 접하지 못했던 사진들이 눈길을 끄는데, 이방인이 드나들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의 이슬람대사원 사진 등이 그 예이다. 또 이 책에 실린 사진의 절반 가량은 사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동양맥주 박용성 부회장의 작품이다.

한국인의 시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 책에 실린 여행담 역시 한국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 까닭은 사회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 71명이 필자로 참여해 세계적인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강영훈 전 총리, 최호중 전 외무장관 등 정계 인사는 물론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을 비롯한 재계인사, 그리고 김성우 한국일보 고문 등 언론인과 작가 고은·이문열·최일남씨, 전 농



구선수인 박신자씨 등이 세계적인 명소 101곳을 여행하며 느낀 감동과 흥미로운 여행담을 전해준다.

### 명사들의 개성 강한 여행기도 실어

북아메리카, 중남미, 오세아니아·남태평양, 유럽, 북유럽, 독립국가연합과 동구권, 아프리카·중동, 아시아로 지역을 나눠 모두 51개국의 자연의 비경과 문화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 책 168면에서 171면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방문소감을 적고 있는 작가 이호철씨는 “그지없이 깔깔하지만, 조금 조잡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으면서, “상업도시로서의 활기가 들끓고 있지만, 도시 전체가 풍겨주는 느낌은, 괴테박물관이나 괴테하우스에서 풍기는 느낌, 고색창연한 늙은 느낌과 비슷하다”고 평한다. 이처럼 이 책에 실린 하

나하나의 여행기는 단순한 관광지 소개나 서구문명에 대한 찬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곳의 문화와 역사 등을 격조 있게 ‘폼퐁’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꼼꼼히 읽을 만한 것이다.

또 이어령씨는 프랑스의 파리방문기에서 “세계의 향락과 사치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베르사이유는 미의 바티칸, 사치의 올림피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불꽃을 펼쳤다. 바로 이 곳, 이 華美와 탕진과 쾌락의 방 속에서 피의 혁명을 낳은 것이다. 베르사유, 그것은 죄를 낳은 장미밭”이라고 적고 있어 유려한 문체를 과시하기도 한다.

촬영팀이 일일이 현지를 방문해 항공촬영 등을 시도, 보다 신선한 장면을 영글에 담은 노력을 보인 점이나 각계 인사들의 독특한 시각의 글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출판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지나치지 않은 이 책은, 아낌없는 투자와 참신한 기획에 의해 좋은 출판물이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한 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동아출판사/A4/412면/25,000원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유시화 옮김/4,000원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러운 본질/최서림 옮김/3,500원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길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위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외 지음/이효림 엮고 옮김/3,500원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근·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신의 뜰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톨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버터드 T. 스폴딩/정창영 옮김/7,000원

###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소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체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3,500원

###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엮고 감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